

第40次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 參席報告

張 一 世
韓國開發研究院圖書室長

1.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의 目的

國際圖書館協會聯盟(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略稱 IFLA)은 1928년에 創設된 國際機關으로서, 現在까지 94個國이 加盟하고 있으며, 그 中에는 共產國家도 약 20個國이나 된다.

IFLA의 目的은 各國 圖書館 相互間의 紐帶를 긴밀히 함으로써 書誌情報의 交流를 통한 人類文化向上과 相互間의 理解를 圖謀하고, 아울러 새로운 圖書館學 및 圖書館 經營에 관한 學術을 研究, 交換함으로써 斯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 韓國과의 관계

우리 나라는 1955년에 韓國圖書館協會의 創設과 동시에, 前記한 바와 같은 IFLA의 目的에 贊同할 뿐만 아니라 그 聯盟에 加入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앞으로의 圖書館發展에 더욱 寄與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同年 IFLA에 加盟하였다.

그러나, 加盟만 하였을뿐, 年次 總會에는 경비관계로 10餘年間 우리 나라 代表가 參加하지 못하였으나 1969년에 우리 나라에서 開催하였던 아시아 太平洋地域 10餘個 國家의 國際圖書館會議은 우리 나라 圖書館界가 國際적으로 進出할 수 있다는 實證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會議을 契期로하여 그 後로는 積極적으로 每年 國際會議에 참가하게 되었다.

3. IFLA 總會의 韓國誘致

沈滯된 우리 나라 圖書館界에 活力을 불어 넣기 위하여는, 우리 나라 圖書館 發展에 決定的인 役割을 담당하는 政策立案者들을 啓蒙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IFLA와 같은 大規模 國際會議를 誘致하는 것이 매우 效果的이므로 IFLA 總會 韓國誘致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 圖書館人들의 目的은 上記한 바와 같은 附隨的인 效果도 期待할 수 있다. 즉,

가. 各國 文化活動의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한 圖書館長, 書誌學者, 文化人들이 來韓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眞正한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여 줄 機會가 될 것이다.

나. 各國 文化界 人士들이 그들이 본 眞正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들 國民들에게 알림으로써 韓國을 理解시키는 機會가 될 것이다.

다. 500~600名の 94個國 代表가 參加하는 大規模 圖書館 會議를 開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爲政者들에게 뿐만 아니라 一般 國民들에게 까지도 圖書館의 主要性을 認識시키는 機會가 될 것이다.

라. 20個國의 共產國家를 포함한 世界 各國과 文化交流를 통한 相互理解 增進을 위한 좋은 機會가 될 것이다.

마. 各國의 一流 圖書館學者, 圖書館 實務者, 書誌學者들이 參席 討議하게 되므로 그 方面의 發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 IFLA 40次 總會(美國 워싱턴에서 開催)를 제외하고 歐羅巴에서만 開催되었던 이 會議를 아시아에 誘致함으로써 여러 開發途上國 圖書館發展을 위하여도 큰 刺戟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代表들의 誘致活動에 따라 1974年 5月 IFLA 事務總長이 來韓하여 現地 踏査를 한후 日本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IFLA 理事會에 報告하여 드디어 1976年 IF LA 總會의 韓國開催가 決定되었다.

4. 理事會에서의 決定經緯

5월의 IFLA 理事會가 있는 後 9월에 다시 파리에서 理事會가 開催되었는데, 그 理事會에서는 5月 理事會에서 決定된 1976年 總會의 韓國開催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理由로써 일단 留保하기로 決定하였으며, 最終的인 決定은 40次 總會 開催地인 워싱턴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通報를 9月下旬에 接受하였다.

가. IFLA의 構造改編이 現在 構想中이어서 1976年에는 그것이 實現될 展望이므로 따라서 1976年 總會를 먼 韓國에서 開催하는 것은 매우 위태하고 非能率的이다.

나. 1976년에는 비올빈에서 亞細亞地域 圖書館大會가 開催되는데, 또 같은 해에 韓國에서 開催한다면 參加者들의 經費負擔이 너무 過重하고, 또 大多數 圖書館人들이 參加하는 歐羅巴地域에서 韓國에 간다는 것은 經費負擔이 너무도 不合理하다.

表面上의 理由는 이상과 같은 것이지만, 워싱턴에서 探聞한 바에 따르면 파리理事會 때에 소련代表가 韓國에서의 開催에 反旗를 들고 韓國대신 『체코슬라바키아』에서 開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上記 理由中의 첫째 문제는 東京理事會 당시 이미 충분히 論議되었던 일이므로 새삼스러이 문제되는 것이 없으며, 두번째의 理由는 亞細亞地域 圖書館大會라는 것이 아무런 계속성이나 구체적인 計劃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二重의 經費負擔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歐羅巴地域 圖書館人들의 來韓費用문제는 東京理事會에서 이미 충분히 論議되고 在論할 문제가 없는 것이다.

숨은 理由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衝擊이 아닐 수 없었다. 北韓은 1970年 소련 모스크바에서 開催되었던 IFLA總會 당시 聯盟에 加入하였는데, 北韓을 포함한 共產블럭에서의 妨害工作때문인 것으로 直感하게 되었다.

따라서 워싱턴總會는 우리에게 매우 重要的 會議로 突變하였다. 만일 우리들이 總會의 韓國誘致에 失敗할 경우 결국은 共產블럭의 妨害工作에 敗北하고 마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強力한 代表團의 派遣이 필요했다. 李瑄根會長, 朴啓弘 理事, 朴大權 事務局長, 張 一世專門委員會委員長, 金宗會 分科委員長을 대표로, 그리고 具滋英 梨大教授 등 3명의 ㆍ서버로 하는 8名の 代表가 參席하였다.

11月 18일에 시작되는 總會에 앞서 16日 午前 9時부터 理事會가 열렸다.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會議이다. 우리 代表團에게는 發言할 機會가 주어질 예정이니 待機해 달라는 通報가 왔다.

점심시간도 없이 理事會는 마라톤 會議였다. 韓國에서의 開催를 놓고 論難이 많음을 말해 준다.

午後 2時 30분에야 우리 代表團에게 參席하라는 連絡이 왔다. 李瑄根 會長님과 朴啓弘 理事 그리고 張 一世 專門委員長등 3인이 참석했다.

理事會의 分團氣는 한마디로 嚴肅하였다. 리버會長을 비롯한 全理事陣이 둘러 앉아 있다. 모두들 일어서서 우리들과 握手를 交換하면서 자기 紹介를 하였다.

着席하자 우리 代表團에게 發言權이 부여되었다. 李會長께서 간단히 人事를 겸하여 參席케 해주는데 대하여

謝意를 표명한 후 朴理事가 韓國開催에 따른 前記한 파리理事會에서의 두가지 理由가 充分함을 指摘하고 우리나라에서 開催하는 경우 誠心誠意껏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 努力하겠다는 뜻을 開陳하였다.

우리들의 意見에 대하여 특히 西獨代表와 말테이지 아代表가 積極的인 뒷받침을 해준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리버博士의 司會는 일품이었다. 會議는 일사천리로 進行하였다. 韓國에서의 開催를 反對할 수 없도록 재치있게 會議를 進行시켜 드디어 리버會長께서 韓國開催確定을 宣布하였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여기서 장황하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다. 여러 理事들은 拍手로서 祝賀해주었다. 우리들은 비로소 安堵의 숨을 쉬게 된 것이다.

5. 40次 總會

70餘個國 代表 1,200名이 參加하였다. 總會는 11月 18일부터 23日까지 6日間 계속되었다.

우리 代表團은 자기 나누어 가능한한 여러 會議에 參席하였다. 바로 이러한 會議를 1976년에 우리가 開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무려 30餘 分科로 나누인 會議가 어떤때에는 同時에 7,8個會議場에서 進行되기도 하였다.

分科會議의 主題는 各 館種에 관련된 主題, 技術的인 문제, 運營問題, 教育問題, 建築문제, 機械化문제 書誌문제 등등 廣範圍하게 모든 문제가 망라되어 있고 그러한 主題에 대한 論文發表와 發表論文內容를 위주로 한 討議가 있었다.

이 總會은 大主題로 “國家的 및 國際的 圖書館 計劃”(National and International Library Planning)로서 첫날 開會式에 이어 美國 國家圖書館 및 情報科學委員會 會長인 프레드릭 버크하트(Frederick H. Burkhardt)氏의 基調演說이 있었는데, 그 內容은 國家 및 國際的 圖書館 計劃에 대한 方法論을 分析한 것이다.

이러한 開會에 이어 各 分科別 主題發表 및 討議가 있었고, 끝날 總會의 閉會式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代表團의 團長인 李瑄根 會長께서 직접 壇上에 나가 1976년에 開催되는 韓國에서의 會議가 理事會에서 正式 決定되었음을 宣言함과 同時에 이 聯盟에 加入된 모든 會員國 代表들에게 정중한 紹語를 하자 萬場한 各國 代表들은 雨霂와 같은 拍手로서 이에 答禮하였다. 매우 感激的인 순간이었다. 李會長께서 下壇하여 代表團席으로 돌아올 때 여러 國家 代表들이 일어서서 握手를 請할 때 우리 代表團들의 가슴은 뭉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9면에 계속)

때문에 一定한 豫算이 없고 74年度에 本道 教育委員會에서 8個 郡立圖書館에 1,550만원의 補助를 주었으며 75年度에는 內務部의 指示로 地方自治團體(郡)에서 郡立圖書館 育成에 對한 示達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一定한 豫算이 固定的으로 策定되는 公共圖書館은 다음과 같다.

〈표 10〉

館 名	豫 算 額	資料購入費	예산에對한 자료비율
慶北學生圖書館	32,157,000	5,600,000	17.4
大邱市立 "	72,706,000	12,845,000	17.7
浦項市立 "	1,196,000	111,000	9.2
慶州市立 "	3,568,000	570,000	16.0
金泉市立 "	2,270,000	500,000	22.0
安東市立 "	3,002,000	788,000	24.5
慶山郡立 "	1,019,000	335,000	32.1
計	114,922,000	20,749,000	평균 19.8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豫算中 資料購入費는 平均 19.8%에 不過하니, 資料擴充에 애로가 많은 것이다.

② 大學圖書館

〈표 11〉

區 分	豫 算 額	資料購入費	比率 (%)	學生1 人當도 서관비	學生1 人當 자료 구입비
學 郡	138,689,440	7,675,000	48	6,986	3,436
教育 大學	8,776,588	5,476,488	62.4	5,699	3,556
一般專門學校	9,474,000	6,286,550	66.4	1,895	1,559
看護專門學校	2,688,000	1,668,000	62.5	1,561	976
計	159,608,023	81,106,037	평균 59.8	평균 5,712	평균 2,652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資料購入費比率이 平均 59.8%이고 學生 1人當 平均 圖書館費가 5,712원인데

(17면에서 계속)

總會期間中 거의 매일 저녁마다 各國代表團들을 환영하는 파티가 열렸다. 美國議會圖書館長, 美國務長官, 國立美術館長 등이 배푸는 파티는 호화스러웠고, 그 장소에서는 各國 代表들 사이에는 和氣가 넘치는 對話가 이루어 지곤 하였다.

6. 結 言

이번 40次總會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成功的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韓國圖書館界가 國際적으로 크게 浮刻되는 契期를 만든 會議였다고 自負하고 있다.

1976年 6월에 開催될 서울에서의 IFLA總會가 단순

우리나라 全體大學生 平均圖書館費 2,527원에 比하면 相當히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日本의 6,400원 美國의 59.25 \$ (28,445)에 比하면 아주 모자라는 實情이다.

③ 學校圖書館

〈표 12〉

區 分	豫 算 額	學 生 數	學生 1人當 豫 算 額
國 民 學 校	47,115,535	804,023	58
中 學 校	119,563,050	285,947	418
高 等 學 校	1,770,954	133,929	458
計	168,449,539	1,223,899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民學校 兒童 1人當 58원 中學生은 418원 高等學生은 458원이다. 앞에서 도 言及하였지만 中高等學校 學生에게는 年間 1人當 圖書費가 450원 策定되어 自律의 經費로 徵收하지만 國民學校는 一定 豫算이 策定 되지않아 學校長의 觀心度와 能力에 따라 豫算確保에 差異點이 있다.

④ 特殊圖書館

15個 特殊圖書館中 豫算을 밝힌 곳은 9個館뿐이며 9個館의 總額이 15,260,000원에 不過하다. 館當平均 1,695,000원에 不過하니 人件費 運營費를 除하면 資料購入費는 적을 수 밖에 없다. 特殊圖書館일수록 外國의 產業情報 蒐集에 敏敏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豫算策定에 과감한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⑤ 마을文庫 및 文化院

마을文庫에는 豫算이 없고 文化院도 各市郡의 補助金과 會員의 會費 및 贊助金으로 維持되는 關係로 讀書施設이나 圖書購入은 거의 할 수 없는 形便이다. 7個 文化院의 도서실 總豫算이 80萬원에 지나지 않으니 過히 그 容內을 짐작할 수 있다.

히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活動의 結果로서 열린다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國力을 誇示하고, 우리 나라의 찬란한 文化遺産을 生生하게 많은 外國의 文化人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認識시킬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될 것으로 믿고 있기때문에 우리 圖書館人들이 그 會議를 主催하는데 있어서 한층 더 用意周到한 計劃과 團合된 努力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機會를 빌어 전체 圖書館人들의 團結과 관련기관 및 政府當局의 積極的인 支援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